

제1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9.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9월 29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고 승 범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의결 제309호~제325호)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정 은 보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1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7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1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7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배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0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10호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법 개정 등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관을 변경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1호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법 개정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정관을 변경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API를 통한 신용정보 이동권 시행 등에 앞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

○ (위원) 3만 원이면 과대한 보상이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경품제한을 3만 원으로 한 근거가 궁금함.

- (보고자)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업권 쪽에도 유사한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경품제한 규정이 있음. 그래서 보험 쪽이라든지 은행 쪽의 경품제한 규정을 참고해서 3만 원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는 청탁금지법의 3만원을 원용한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3호 『신한카드 등 2개사의 신용정보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대해 신용정보업 본허가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4호 『BC카드(주)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BC카드에 대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5호 『이지스자산운용(주)의 네오밸류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지스자산운용(주)이 네오밸류파트너자산운용(주)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른 출자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6호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과 우리자산운용(주)의 분할합병 승인안 및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이 신청한 분할합병 승인 및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 신청한 공모집합투자업 폐지 승인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7호 『블랙록자산운용(주)과 하이자산운용(주)의 분할합병 승인안 및 블랙록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블랙록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이 신청한 분할합병 및 블랙록 자산운용이 신청한 공모 집합투자업 폐지 승인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8호 『엠지손해보험(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엠지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재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 (위원)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서 2018년에 최초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후에 그 뒤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적기시정조치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개선 효과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음. 그런 과정에서 자산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계획도 실행이 되지 못하거나 이처럼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 부실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월말에 엠지손해보험(주)의 경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때 이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실행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이번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되면 엠지손해보험(주)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함. 다시 제출하게 되는

경영개선계획이 재차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경영개선명령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추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을 통해 제3자 매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9호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취지, 회사의 RBC 및 경영실태 평가 개선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0호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000에 대한 직권 재심 처리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000에 대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로 '개선' 조치한 것을 대법원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로 직권 재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1호 『(주)우리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우리카드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회원(17,531건)에 대해 연회비 2.3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2호 『(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3호 『(주)이에스큐브 등 4인의 이에스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이에스큐브 등 4인의 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4호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에 대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인가 없이
영위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어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검사에 착수하였는데, 제재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되어서 금감원 검사반이 위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는데 결정적인 혐의
를 확인하지 못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5호 『(주)4차혁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년도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현재 부동산시세 관련하여 통용되는 참고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일반거래 등 네 가지인데 이 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것도 포함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 부동산시세를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 (보고자) 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볼 계획이었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음.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있었습시다라는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6호 『(주)하나은행의 일부 영업 양도에 대한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7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한시적 완화 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8호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화 LCR 완화 연장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외화
LCR의 한시적 완화를 '22.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

○ (위원) 제가 지난 안전검토 소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면 기재부 입장에

서는 지금 시장에 “은행들이 단기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시그널(signal)을 주기 싫다는 의미이고, 그런데 은행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의(watchout)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음.

- (위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분석과장님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건전성을 생각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외환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규제비율을 정상화 하는 것이 바른 단계(step)라고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지금 현재 80%에서 70%로 완화가 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가진 우리나라 은행도 100%를 상회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일전의 안전검토 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규제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당장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써 작용되는 부분보다는 기재부나 또 저희 실무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시그널 효과(signal effect)를 통해서 단기 외채 부담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가 촉발(trigger)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감원에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Stress Test 같은 것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위원) 금감원에서도 보시고, 한국은행에서도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계시니까, 알겠음.

○ (위원)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상당히 높은 것은 저희들도 보고 있음. 그런데 단기 외채라든가, 유동 외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계속 보이고 있으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악성은 아님. 전반적으로 이런 단기 외채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음.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안 늘어나고 유동 외채비율은 늘어나지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자산매입축소(Tapering)라든가, 환율변동 때문에 스왑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같은 것을 충분히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위원) 이렇게 하면서 동향을 잘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0호 『무위험지표금리(RFR)의 금융거래 중요지표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채·통안증권 RP 익일물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 예정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1호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32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33호 『현대차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하고, 동 안전에 대한 안전소위 주요 논의 내용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설명함

※ 하나금융투자 등 3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성과보수 수취 금지 위반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1호부터 제333호까지의 안건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금번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대부분 수수료 지급과 할인매각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유사시기에 매입한 대부분의 투자자에 대해 동일한 제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71조는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규제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동건 거래는 기관투자자간의 거래로서 수수료 지급행위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발생이나 기관의 투자판단 왜곡 등이 없어 제재효과나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금투업계 대상 실태조사 결과 유사한 거래에서 증권사가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가 금번 3개사 외에도 다수 확인되는 등 수수료 지급을 일종의 시장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가공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결과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하게 회계처리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거래질서의 투명성 차원에서 수수료 지급 관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위는 법인 간 계약결과인 동건 수수료 지급 행위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되,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와 금융감독원이 업계가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을 지양하도록 계도해 나가 주시기를 요청 드림. 아울러 차제에 위법성 기준이 모호

한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재산상 이익제공의 유형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금융위는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전제로 동건 조치안에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수수료 지급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각각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40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1호 『SK증권(주)의 적기시정조치 요건해소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SK증권이 공모주 청약업무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21.4.30.)하였으나,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21.5.3.)함에 따라 별도 조치 없이 종결함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2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3호 『(주)○○○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2분 폐회)